

# 아이스댄스 임해나·취안예 한국 선수 첫 금메달

## ISU 주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 총점 161.96점으로 우승

아이스댄스 간판 임해나(18)·취안예(21·이상 경기일반)조가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국제빙상 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메이저대회 금메달을 차지했다.

임해나·취안예 조는 28일 프랑스 쿠르슈벨에서 열린 2022-2023 ISU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1차 대회 아이스댄스 프리댄스에서 기술점수(TES) 54.55점, 예술점수(PCS) 44.70점, 총점 99.25점을 받아 리듬 댄스 점수(62.71점)를 합한 최종 총점 161.96점으로 프랑스 셸리나-장 푸호노 조(147.66점)를 여유 있게 제치고 우승했다.

두 선수는 데뷔 시즌인 2021-2022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며 한국 아이스댄스 팀으로는 처음으로 메이저대회에 입상했

고, 올 시즌엔 사상 최초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한국 아이스댄스 선수가 ISU 그랑프리 시리즈 무대에서 시니어와 주니어를 합쳐 금메달을 획득한 건 이번이 역대 처음이다.

한국 피겨는 김연아 데뷔 후 남녀 싱글에서 굵직한 성과를 냈지만, 남녀 선수가 조를 이루는 아이스댄스와 페어 종목은 변방에 머물렀다. 1999년 강원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아이스댄스 양태화-이천근 조가 동메달, 2013년 NRW트로피 아이스댄스 주니어 부문에서 레베카 김-키릴 미노프 조가 금메달을 차지했지만, 메이저 무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임해나는 캐나다와 한국의 이중국적을 가졌으며, 지난 시즌부터 한국 국적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취안예는 아이슬란드에서 태어난 중국계 캐나다인이다.

ISU 주관 대회 페어와 아이스 댄스에서는 두 명의 선수 중 한 명의 국적을 선택해 대회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올림픽은 두 선수의 국적이 동일해야 한다.

임해나·취안예 조는 첫 번째 연기 요소인 코레오 그래픽 스피ن(레벨1)을 우아한 동작으로 처리한 뒤 나란히 서서 똑같이 돌며 이동하는 싱크로나이즈드 트워즐을 레벨4로 연기하며 수행점수(GOE) 2.32점을 챙겼다.

이후 우아한 스텝시퀀스로 연기의 완성도를 높인 두 선수는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를 들어 올리는 댄스 리프트(레벨4)를 안정적으로 처리했다.

두 선수는 이후 스텝시퀀스와 댄스 스피ن(레벨4), 코레오 그래픽 슬라이딩(레벨1), 댄스 리프트(레벨4)를 큰 실수 없이 수행하며 연기를 마쳤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열린 모든 종목에서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남자 싱글에선 차영현(고려대)이 196.15점으로 은메달을 차지했고, 여자 싱글에선 2009년생 김유재(명준중)가 프리스케이팅에서 트리플 악셀 점프 랜딩(착지)에 성공하는 등 인상적인 연기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아이스댄스 간판 임해나(18)·취안예(21·이상 경기일반)조가 28일(한국시간) 프랑스 쿠르슈벨에서 열린 2022-2023 ISU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1차 대회 아이스댄스 프리댄스에서 최종 총점 161.96점으로 우승했다. <ISU 소셜 미디어 캡처>

## “팬들에 부끄럽다”... 이기고도 고개 숙인 광주FC 이정호 감독

### K리그2, 부산에 1-0 신승

### “좋은 경기력 보여주지 못해”

“부끄럽다. 팬찮았던 부분은 없는 것 같다. 팬들에게 죄송하다.”

광주FC 이정호 감독이 지난 27일 부산아이파크와의 경기 끝난 뒤 고개를 깊이 숙였다.

얼핏 보기에 “패자”의 인타부 같지만 이날 광주는 홈에서 진행된 35라운드 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두며 11경기 연속 무패행진 속에 20승에 선착했다. ‘승장’ 이정호 감독을 자책하게 만든 장면은 무엇이었을까?

전반전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광주는 전반 5분 광주 이희균의 오른발 슈팅을 시작으로 공세에 나섰다. 전반 28분에는 프리킥 상황에서 산드로가 나서 오른발로 직접 슈팅을 선보였다. 상대 골키퍼 구상민에게 막혔지만 위력적인 슈팅이었다.

전반 32분에는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다.

이상기의 패스를 받은 헤이스가 페널티지역에서 김상준에게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키커로는 엄지성이 섰다. 앞선 서울이랜드 원정에서는 엄지성이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헤이스가 키커로 나서 시즌 10번째 골을 기록했었다.

“다음에 페널티킥을 얻으면 양보하겠다”고 말했

던 헤이스는 약속대로 엄지성에게 득점 기회를 넘겼다. 엄지성은 침착하게 오른발로 부산 골대를 가르면서 광주의 선제골을 장식했다.

후반 42분에는 상대의 ‘퇴장’이라는 호재도 나왔다. 부산 박정인이 엄지성의 발목에 직접 태클을 했고 비디오 판독 결과 옐로카드가 레드카드로 바뀌었다.

앞선 서울이랜드전 4-0 승리를 이어 이번에도 기분 좋은 대승을 만드는 것 같았지만 결과는 1-0 신승이었다.

추가골 사냥에 실패하면서 후반 중반 이후에는 여러 차례 위기도 있었다.

후반 25분 황준호의 머리, 43분에는 어정원의 왼발이 광주의 골대를 노렸다. 후반 막판에는 에드워즈와 조위제가 위력적인 슈팅으로 광주를 위협했다.

무실점으로 경기가 끝났지만 최하위 부산을 상대로 한 아쉬웠던 승리.

부산 박진섭 감독은 “어려운 경기였다. 퇴장당한 선수가 있었고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잘 버텼다. 오늘 같은 경기가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단단해지는 경기가 되면 좋겠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원정에서 충분히 잘 싸워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승리를 이끈 이정호 감독은 오히려 “전반-후반전 경기력에서 쪼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다. 감독으로서 부끄러운 승리인 것 같다. 많이 부끄럽다”며 “홈팬들 많이 찾아와주셨는데 이런 경기를 보고 싶

어서 찾아오시는 게 아니다. 팬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 내 책임이니까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반성했다.

이 감독은 이날 김중우를 중심으로 전술을 구사하며, 포백 카드를 들고 나왔다. 김중우는 공수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기대에 부응했지만 후반전이 문제였다.

이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안영규 대신 김재봉을 투입했다. 2분 뒤에는 전반전 발목 태클을 당했던 엄지성을 빼고 하승운을 그라운드에 올렸다. 후반 21분에는 이희균-김중우를 대신해 허율과 박한빈을 투입했다. 후반 32분에는 이상기가 나오고 이영민이 들어갔다.

교체 카드로 후반전 총공세를 펼칠 계획이었지만 공수에서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다.

이 감독은 “후반전 경기력이 문제였다. (상대) 퇴장 이후 경기력과 태도를 선수들에게 말할 생각이다. 교체해 들어간 선수들도 내용이 좋지 못했다. 다른 축구를 해야 했는데 불만 쫓아다니고, 생각 없이 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질책했다.

또 “팬찮았던 부분은 없었다. 선수들에게 실망 많았다. 결과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선수들이 보완해야 할 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쪼고 넘어가야 한다”며 “(다음 경기인) 부천전의 경우 FA컵에서 쪼였다. 이번 경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강인(마요르카)이 27일 열린 2022-2023시즌 프리메라리가 3라운드 라요 바예카노와 원정 경기에서 후반 19분 추가골을 터뜨린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드디어 터졌다... 이강인 시즌 첫 골

### 마요르카, 라리가 3R 2-0 승리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마요르카에서 활약하는 이강인(21)이 시즌 첫 골을 터뜨렸다.

마요르카는 지나나 27일 열린 2022-2023시즌 프리메라리가 3라운드 라요 바예카노와 원정 경기에서 2-0으로 이겼다.

전방 투톱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팀이 1-0으로 앞선 후반 19분에 추가 골을 터뜨리며 시

즌 마수결이 득점을 올렸다. 앞선 두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했던 마요르카는 1승 1무 1패를 기록, 프리메라리가 20개 팀 가운데 7위로 올라섰다.

전반 13분에 마요르카가 선제 득점을 올리며 기선을 제압했다. 베아트 무리키가 다니 로드리게스의 패스를 머리로 받아 넣어 2라운드에 이어 두 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했다. 무리키의 2라운드 득점에는 이강인이 도움을 기록한 바 있다.

1-0으로 전반이 끝났고, 이강인은 후반 19분에

2-0을 만드는 득점을 책임졌다.

골키퍼의 골킥이 상대 수비 머리 맞고 흐른 공을 잡아 상대 페널티 지역 안으로 침투한 이강인은 왼쪽 측면에서 왼발 슈트로 라요 바예카노 골문을 열었다. 2라운드 레알 베티스와 경기 후반에 프리킥으로 크로스를 때린 아쉬움을 털어내는 골이었다.

지난 경기 도중에 이어 두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이강인은 지난해 9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골을 넣은 이후 11개월 만에 마요르카 소속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축구 전문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닷컴컵은 이강인에게 평점 7.31을 줬 무리키의 7.35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매겼다. /연합뉴스

## KIA 울시즌 10승 투수 2명?

### 양현종 10승 고지 안착 이의리 8승...2승 남아



종만 유일한 10승 투수다.

양현종은 올 시즌 24경기에 나와 141.1이닝을 소화하면서 3.76의 평균자책점으로 10승 6패를 기록하고 있다.

양현종은 지난 7월 29일 SSG와의 경기에서 10승을 채우면서 KBO리그 통산 5번째 8년 연속 10승을 장식했다.

이어 이의리가 프로 첫 10승을 겨냥하고 있다.

이의리는 지난 25일 LG와의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 호투를 하면서 1-0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이와 함께 24경기에 등판한 이의리의 올 시즌 성적은 3.96의 평균자책점과 함께 8승 8패가 됐다.

이의리는 남은 등판에서 2승을 더하면 처음 10승 투수가 된다.

지난해에는 손가락 물집과 발목 부상으로 9월 12일 NC전을 끝으로 시즌을 조기 종료하면서 4승 5패로 프로 데뷔시즌을 마감했었다.

이의리가 2승을 추가하면 올 시즌 팀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10승 투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팀 내 다승 3위는 전상현으로 5승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한승혁이 4승으로 팀 내 다승 4위다.

중도에 방출된 로니 윌리엄스와 함께 부상에서 복귀한 선 놀린이 3승이고, 유승철과 윤종현도 3승 투수다. 후반기 에이스로 역할을 하고 있

는 토마스 파노니도 28일 등판에 앞서 2승. 선발 로테이션을 굳게 지키고 있는 임기영도 2승에 멈춰있다.

전반기 외국인 듀오의 부상·부진으로 선발진 운영이 매끄럽지 못했고, 들쭉날쭉한 타선 탓에 선발진들의 승수가 부족했다. 승운도 따르지 않고 있다.

특히 임기영은 로테이션이 밀리면서 후반기 두 차례 불펜으로 나서기도 하는 등 꾸준하게 마운드를 지켜주고 있지만 유독 승운이 없다.

임기영은 18번째 선발 등판이었던 지난 27일 두산전에서 6.1이닝 2실점으로 시즌 8번째 퀄리티 스타트를 장식했다. 올 시즌 평균자책점은 4.27.

하지만 이날 경기가 1-2패로 끝나면서 임기영은 승리가 아닌 패전 투수가 되면서, 시즌 10패째를 떠안았다.

임기영의 가장 최근 승리는 6월 21일 롯데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잘 던지고도 불펜의 난조 또는 야수진의 집중력 저하 속에서 반반이 아쉬움을 삼키면서 시즌 5승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양현종의 15승도 쉽지 않은 목표가 됐다. 지난 7월 29일 SSG전에서 10승을 기록했지만 이후 양현종의 성적이 좋지 못했다.

양현종은 한화-삼성-NC-기업을 상대로 한 최근 4경기에서 7.66의 평균자책점을 기록, 2패만 더했다.

한편 LG는 벌써 3명의 10승 투수를 배출했다. 켈리가 14승으로 다승 1위를 달리고 있고, 플랫코도 12승을 수확하는 등 외국인 듀오가 26승을 책임졌다.

이민호도 5.42의 평균자책점에도 동료들의 지원 사격 속에 프로 3년 차에 처음 10승 투수가 됐다.

KT에서는 고영표와 소형준 두 미레가 나란히 12승을 기록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